

문제되는 닭질병과 방역관리(3)

질 병

2) 살모넬라 박멸작업의 문제점

가) 추백리인가?, 닭 파라티브스인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질병 가운데 양계산업에서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같은 살모넬라균속에 의한 질병이지만 추백리와 닭파라티브스의 박멸작업의 진행순서가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 살모넬라균에 의한 문제를 모두 같은 범주속에 넣고 생각하고 대처하고자 하는데서 혼돈과 박멸작업의 효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계산업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추백리에 관한 문제가 더 크겠지만 축산식품의 소비량 증가와 더불어 공중위생측면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닭파라티브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집안관리도 못하면서 남의 사정 생각할 틈이 없듯이 집안에서 해결할 추백리도 잡지 못하고 다른 집안문제까지 넘겨보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양계산업에 있어 살모넬라균에 대한 박멸 목표는 추백리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야 하고 대책과 방향을 잡아 가야 한다.

나) 추백리 검색에 대한 인식

축산업 가운데도 새로운 기술정보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양계산업이라 할 정도로 양계인들의 기술정보 수준은 축산업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생산성과 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오늘의 기업양계산업으로 발전해 왔듯이 양계인들의 의식구조도 60년, 70년대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되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추백리 박멸



오 경 록

본지 편집위원, 이학박사
천호부화장 상무

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제시도 없이 종계에서 추백리 검색작업만 실시하면 추백리가 박멸된다는 밀어부치식의 실천력이 없는 방법으로 전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 양계산업을 상대로 납득할 수 없는 방향과 행동을 요구한다면 과거와 같이 그대로 순응하며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종계업자들은 추백리 양성계를 도태하므로써의 손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자기 제품(초생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생각과 자세는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보아도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생추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백리 검색 작업이 목적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계업자가 종계수수 등록도 100% 안하고 아예 신고도 되지 않은 부회장도 많다고 해서 추백리 검색실적도 나쁘다고 한탄만 할 일도 아닌 것이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종계업자는 각자 자기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을 잡아 열심히 추백리 검색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계업자의 대부분은 추백리 검색 작업에 의존하여 추백리를 어느 정도까지 퇴치하겠다는 생각에는 의혹심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써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① 전 계군을 검색하여 양성계를 도태한 후 음성계를 일주일 후에 재 검색하여도 양성계가 다시 나온다.

② 계군의 일생중에 120일령부터 한달 간격으로 계속 검색해 보면 양성계가 일정율로 나오며 계속 양성계를 도태한다면 400일령도 못가 전계군 모두 도태될 판이다.

③ 육계 종계와 산란계를 같이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산란계의 양성율은 낮은데 육계종계의 양성율은 높았다.

④ 양성율이 10% 이상인 종계 계군에서 초생추를 부화하여 보아도 부화율의 변화나 그 초생추에서 추백리 증상을 볼 수 없었다.

⑤ 음성계에 비해 도태하고자 하는 양성계의

외관이 너무 양호하여 80%산란지속시까지 산란계로서 활용하였더니 음성계보다 산란율이 양호하였다.

⑥ 양성계에 대한 반응에 있어 민간용 추백리 진단액과 관급용 추백리 진단액이 차이가 있었다.

⑦ 국내 종계와 외국 수입종계를 같이 사육했는데 외국수입종계에서 오히려 양성율이 높았다는 등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추백리 박멸작업 목적으로 추백리 검색작업에만 의존해서는 실효성이 아주 낮아 박멸 효과는 다람쥐 채바퀴 돌기식으로 한치도 발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협회에서의 좌담회, 세미나, 회의 등에서 여러번 논의 되었으나 종계업자들은 추백리 검색을 철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만 하느냐고 단편 일률적인 결론만 나오거나 용두사미식 결과만 나오는 형편입니다. 자율적인 방역이라는 현 추백리 검식제도는 검색 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 관계기관이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시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나서 있겠다는 의미 이상의 아무런 실요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되어 지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관계인은 이상과 같은 의혹심을 풀 수 있도록 과학적인 접근과 설명 그리고 종합적인 추백리 박멸작업 계획을 제시하여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 된다는 설득력과 박멸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순서

3) 살모넬라균과 박멸작업을 위한 제언

가) 종계장의 의무

나) 채란 양계장의 준비자세

다) 현재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대책

다. 주요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 방향

4. 변화되는 예방 프로그램

가. 백신 접종 계획

나. 예방 투약 계획